

특검·추경 오늘 동시처리 불투명

여야,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규모·대상 등 이견 여전

바른미래 “추경 예산 절반 삭감”...평화당 “연기해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17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추경 ‘졸속 심사’를 우려했지만, 여당은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하며 맞섰다.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밤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으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 동시처리를 위해 막바지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의 세부 내용과 특검의 활동기간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다만, 이들은 이날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당 내부에서 다시 조율을 거친 뒤 특검·추경 동시처리 예정일인 18일 다시 협상할 예정이다.

이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한 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 내용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안에 들어있는 16개 사업이 민주당의 6·13 지방

선거 공약과 일치한다면서 약 절반 정도의 예산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1조8296억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등을 이유로 추경안을 18일까지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처리 시한 연기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다급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추경안 18일 처리를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드루킹 특검을 놓고도 규모나 수사기간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규모와 관련,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내국동 특검’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최소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야 3당이 제출한 드루킹 특검법안에는 필요할 경우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여당은 드루킹 특검 수사 규모에 대한 야권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국정농단 사태로 결국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소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이고 긴 기간”이라며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두 안건의 18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21일 이후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쁘다 바빠”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17일 각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위로부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원순 후보, 국회에서 공약발표 회견하는 김문수,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6·13 선거 현장

도지사·군수·시의원 후보

박매호 “생명·실버·관광산업 활력 넣을 것”

박매호 바른미래당 전남지사 후보는 17일 “성공한 젊은 벤처기업가가 전남을 확 바꾸겠다”며 출마선언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민생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친환경 농업전문가로서 탁상공론정치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을 최우선시하는 민생 현장정치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니 이제는 구태정치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주를 견제했다.

박 후보는 “생명산업과 실버산업,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의 토대가 구축돼 있는 전남의 가능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유근기 “상권 되살리기·농산물 판로 최선”

유근기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전원버스와 100원 택시는 대한민국 교통복지 모델이 됐다”며 “전국최초로 문을 연 농업인 재할선센터와 2000명이 넘는 도시에 인구가 선택한 귀농·귀촌지역으로 탈바꿈 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또 “재임기간 정부 3.0평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위의 대통령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역량 주민만족도 평가 전국2위의 평가를 받았다”며 “집체된 곡성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자연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청년 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사랑 받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경배 “발전특위 구성...신안 삶의 질 개선”

전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섬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섬주민 삶의 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설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이 같이 건의했다. 그는 “신안군은 1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섬의 수도이자, 국토 최서남단과 국토 1호선 기점이 있는 대한민국 영토의 출발지”라며 “미래의 중요 국가전략지역인 섬을 발전시키고 섬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을 특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영민, 도지사·완도군수 3자 공동 공약 발표

공영민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후보가 16일 군민통합캠프 출범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 이종걸·김진표 의원, 김승남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 후보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군 3자 공동 선거공약도 발표했다. 고흥 거금도와 완도 금당·평일·생일·약산도 간 4개의 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을 비롯해 대서면~두원면~고흥만~녹동을 잇는 서부해안 지방도교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두원 대전교 대서 송림을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도 약속했다.

이승욱 “농·축·수산업 육성 군민 소득 증대”

이승욱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는 지난 16일 공천장을 받고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화합을 이루고 활기찬 강진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선 결과 발표 후 공천심사위원회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천장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 및 인구 유입 ▲농·축·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지역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주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등 주요공약을 내놨다.

이경호 “광주역을 북구 성장 관문으로”

이경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북구 제2선거구)는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형석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문인 북구청장 예비후보, 강기정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걸음 더 발전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도시재생으로 활기 넘치는 북구,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광주역을 북구성장의 관문으로 만들어 ‘한걸음 더 도약하는 북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오광록·곡성 김계중·고흥 주각중 기자 jwpark@

바른미래-평화당 ‘후반기 국회 부의장’ 신경전

4개 교섭단체 재편...평화당 “자격 있어” vs 바른미래 “황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문화상 의원을 선출한 가운데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고 야당 몫 국회 부의장 두 자리 가운데 민주당이, 다른 한 자리는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회의장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회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여야 합의로 각각 선출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하반기는 상황이 미묘

해졌다. 국민의당 분당으로 국회가 4개의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과 함께 교섭단체(평화외정의 의원모임)를 꾸린 민주평화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원 구성에 있어 국회의석수를 감안하면 ‘평화와정의 의원모임’에 들어갈 상임위원장 자리가 1석 정도다. 이 경우,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장 자리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평화당의 계산이다. 특히, 한국당이 6·13 재보선 결과에 따

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 의장단 선출을 주장하고 있어 평화당은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여야 협상의 폭이 커졌다는 점에서 평화당은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 협상을 함께 하는 ‘일괄 타결안’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미래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의 요구가 지나친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주승용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당이 적절한 합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평화당이 주승용 국회 부의장 카드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의장단과 원 구성 협상에 있어 서로 ‘원-원’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문수 단일화 러브콜에 안철수 “불가”

(서울시장 후보)

여야 1대 1구도 모색...막판 재점화 가능성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발언, 두 야권 후보 간에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측은 즉시 거부 입장을 밝혀 당장 단일화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김 후보는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다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전제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확실하다면 동지로서 생각하고 같이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지만, 안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제1야당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안세력으로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 교체에 시동을 거는 상황인데,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내에 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일 대 일 경쟁구도를 만들려면 결국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전이 본격화했을 때 또다시 단일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